



입에서 나온 말, 어디에서 왔을까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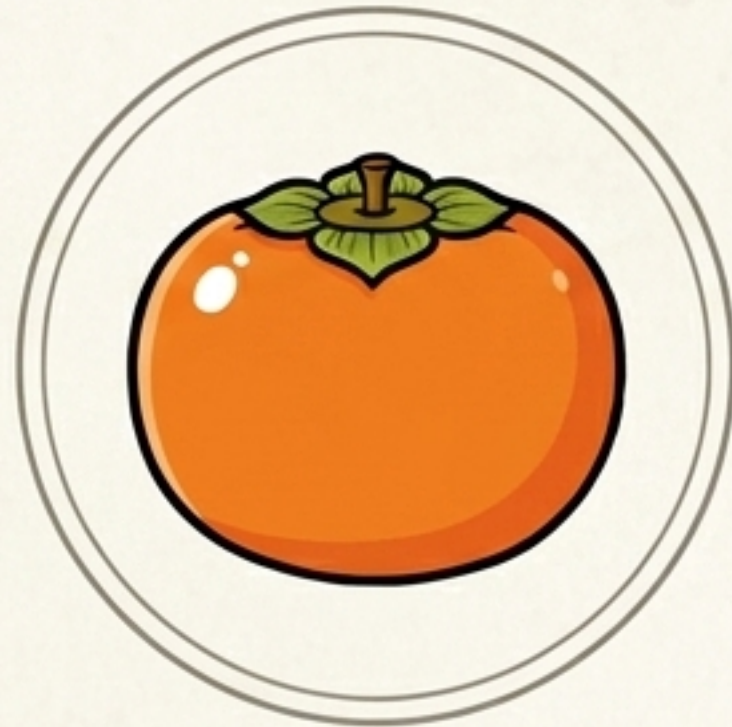
마음의 식물도감:
내면의 상태를 진단하는 영적 원리

누가복음 6장 43-45절



나무는 자기 입으로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.

잎이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았을 때, 나무의 정체를 알기는 몹시 어렵습니다. 하지만 열매를 맺는 순간, 나무의 진짜 이름이 드러납니다.



"나무마다 그 열매로 안다.
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
얻을 수 없고, 가시덤불에서
포도를 딸 수 없다."
(누가복음 6:44)

생명의 절대 법칙: 본질과 결과는 섞일 수 없다

건강한 생명



+

=

불가능



병든 생명



+

=

불가능



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,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.
나무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. 자기가 아닌 것을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. (눅 6:43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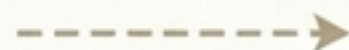
썩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흉내 낼 수 없습니다.

- ❖ 죽어가는 나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스스로 생명력 있는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.
- ❖ 억지로 겉모습만 꾸며내어 열매를 매달아 놓는 것은, 생명이 아니라 조화(Artificial)일 뿐입니다.
- ❖ 열매를 바꾸려면 나무의 본질(생명)이 바뀌어야 합니다.

식물도감에서 마음의 도감으로



뿌리와 토양
(Root/Soil)



진짜 나
(The Unseen Inner Self)
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
나의 진짜 모습과 생각.



기둥과 가지
(Trunk/Branches)



마음 창고
(The Heart's Storehouse)
일상의 경험과 감정이 쌓이는
내면의 공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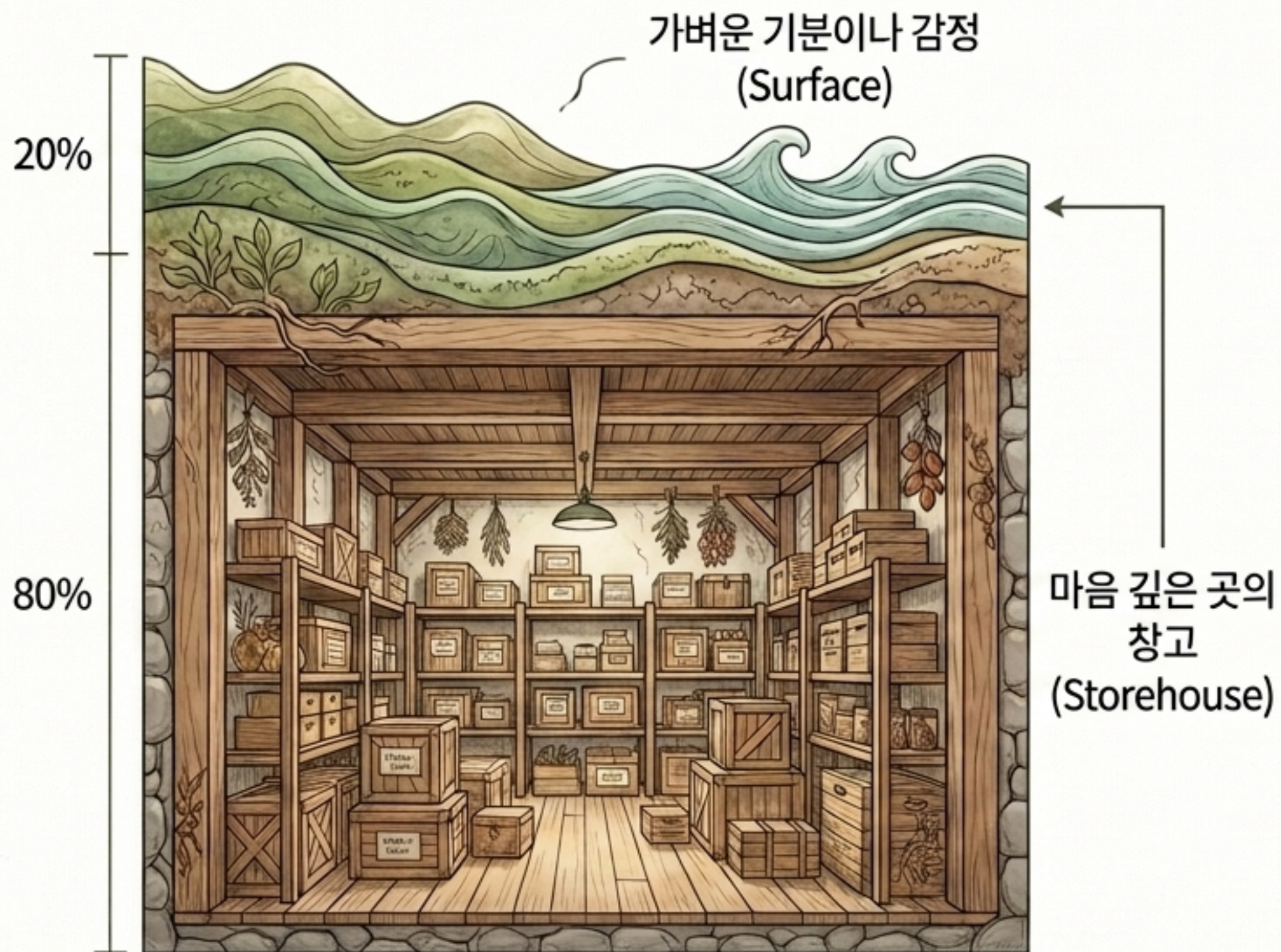


열매
(Fruit)



입에서 나오는 말
(Spoken Words)
내면에 가득 찬 것이 밖으로
드러나는 최종 결과물.

예수님이 말씀하신 과수원의 법칙은
결국 우리 '마음과 언어'의 법칙이었습니다.



마음은 '기분'이 아니라 '창고'입니다.

- 성경이 말하는 마음은 아침저녁으로 바뀌는 가벼운 기분이나 감정(Surface)이 아닙니다.
- 마음은 깊은 곳에 위치한 '창고(Storehouse)'입니다.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, 남몰래 하는 생각들이 차곡차곡 쌓여있는 곳, 그것이 바로 마음입니다.

매일매일 창고에 쌓이는 재고들

우리는 매일 무언가를 마음 창고에 집어넣습니다. 오늘 본 자극적인 영상, 친구가 했던 상처 주는 말, 화가 났을 때 속으로 삼킨 감정들. 하루에 하나씩, 조금씩 나의 내면 창고에 쌓여갑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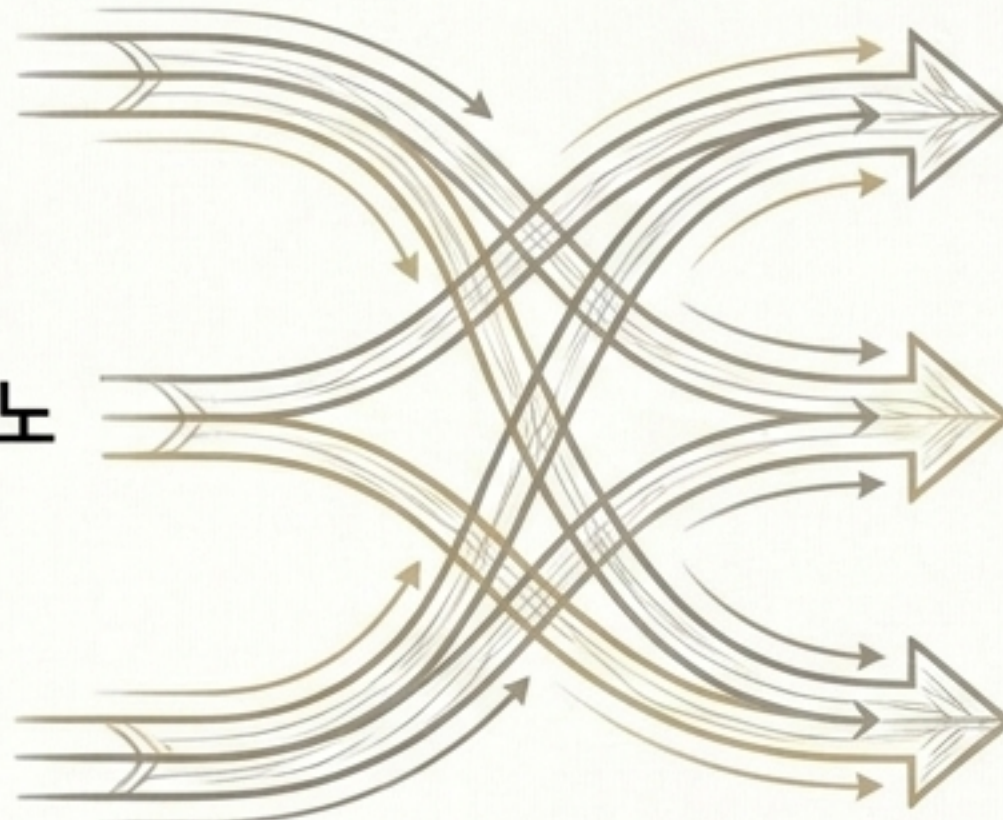
자극적인 영상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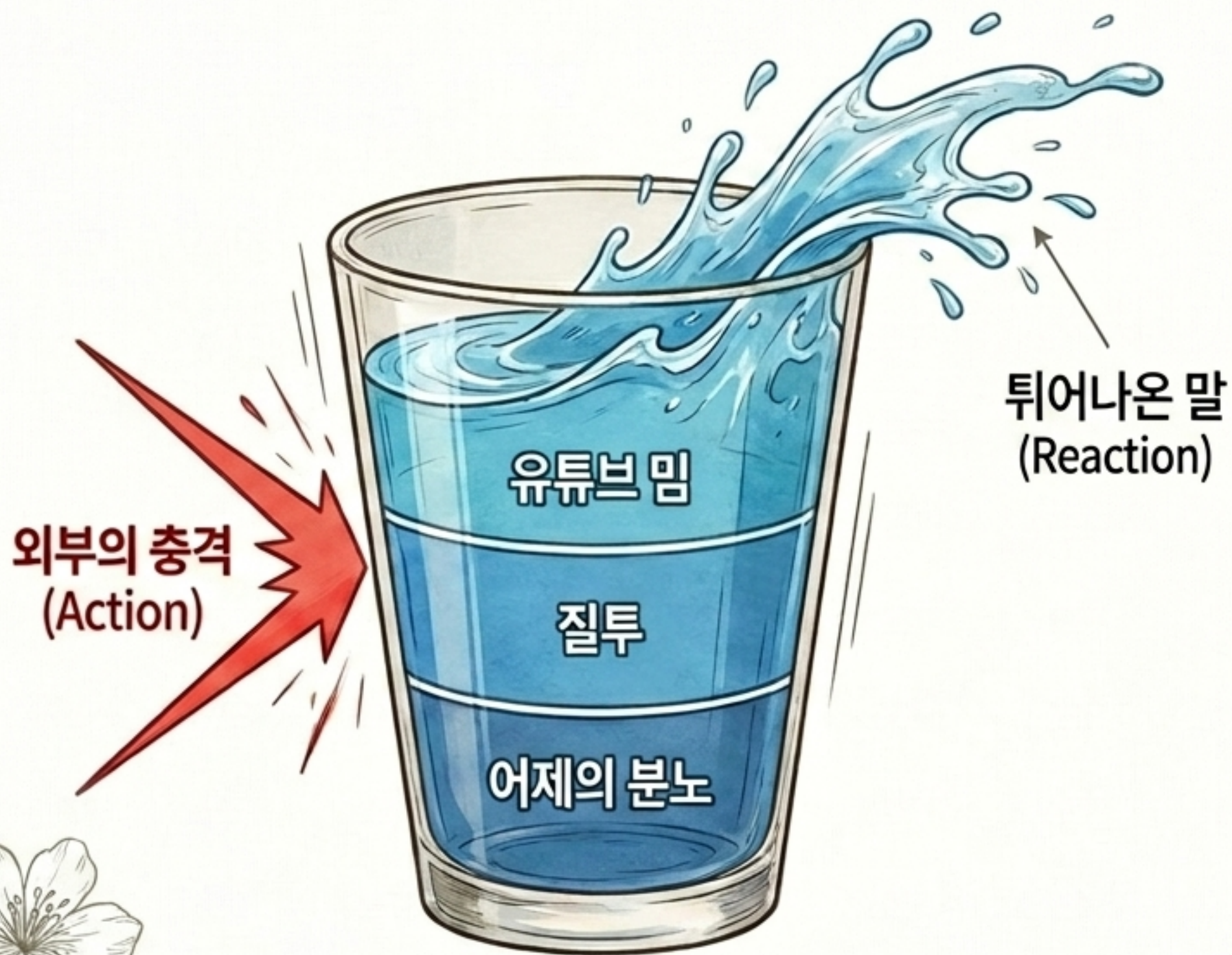
속으로 삼킨 분노



상처 주는 말



“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선한 것을 쌓았다가 선한 것을 내고,
악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악한 것을 쌓았다가 악한 것을 낸다.” (눅 6:45)



흔들릴 때, 원래 있던 것이 넘쳐흐릅니다.

- 물이 가득 찬 컵을 툭 치면 물이 쏟아진다. 중요한 것은, 컵이 흔들려서 물이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.
- 게임에서 졌을 때, 누군가 나를 놀렸을 때 튀어나온 나쁜 말은 그 순간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. 이미 내 창고에 들어있던 것이 충격을 받아 밖으로 넘쳐흐른 것뿐입니다.

말은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‘진단 창문’입니다.

실수로 안 좋은 말을
했다고 해서 즉시
‘나는 썩은 나무인가 봐’
라고 좌절할 필요는
없습니다.



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
정죄의 도구가 아니라,
지금 내 마음 창고에
무엇이 가득 차 있는지
알려주는 투명한
창문(Window)입니다.

“사람은 그의 마음속에 쌓여 있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.” (눅 6:45)

말은 입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. 마음에서 자라서 입으로 나옵니다.



억지로 입을 막고 행동을 교정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.
나무의 뿌리가 바뀌어야 열매가 바뀌듯,
우리의 마음 창고가 새로워져야 합니다.

그렇다면, 내 마음 창고는 누가, 어떻게 바꿔줄 수 있을까요?
(앞으로 3주간 이어질 ‘마음의 변화’ 시리즈에서 그 해답을 찾아갑시다.)